

닭의 덕망을 생각하면서 무역전쟁에 대응합시다



김 순 재
건국대학교 수의과 교수

올 해는 계유년으로서 닭의 해다. 닭이 울면 하루해가 바뀌는 순간이며 여명이 시작되고 새벽을 알려주는 하루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닭에 얽힌 이야기가 너무 많다. 하루가 시작된다는 종소리와도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정신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닭의 울음소리는 이 땅에 여명으로 밝은 빛을 내려주는 듯도하다.

시계가 없는 옛날에는 조상의 기일에 제사모실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정이 넘었다는 시간을 알고 제사상을 철상하였으며 이것은 제사상을 받으러 왔던 조상님들의 혼신이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되돌아 간다고하여 닭의 울음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특히, 어렸을때 어른들의 이 말을 듣고 닭이 왜 빨리 울지 않느냐고하며 제사상의 밤대추, 꽃감에 눈독을 잔뜩 들이고 졸리는 잠을 억지로 참았던 생각이 어제 일 같다.

금년은 계유년 닭띠라고하여 감회가 깊은 사람은 계유년생들이다. 60년 회갑을 맞는 해에다 닭은 예로부터 길조(吉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닭에 대한 속담도 많거니와 우리의 민속이나 고대설화에서는 태양과 빛의 전령이라하여 닭이란 신성하고 총명스런 날짐승중에서 한 종류이다. 가축중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마리수를 사육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대상은 닭이다.

닭은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를 탄생시켰다는 설화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할

정도의 신비성을 지닌 창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훈례의 초례상에 닭을 청홍보자기에 싸서 올려 놓고 폐백에 닭을 올려 놓는 것은 닭이 그만큼 길조요 다복함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닭은 12지의 10번째 동물인 조류의 일종이며 주역의 8괘(卦)로는 손(巽)에 해당되므로 손의 방위는 여명을 알리는 남동쪽 즉, 새벽을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닭은 문(文), 무(武), 용(勇), 인(仁), 신(信)의 다섯가지 덕목을 지닌 동물로 옛부터 칭송되어 왔다. 문은 닭의 벼슬 가르켜 글을 상징하고 무는 매섭고 날카로운 힘과 투지를 과시하며 용은 용감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나타내고 인은 먹이를 발견하였을 때 혼자 독식하지 않고 꼬곡 꼬곡하는 소리로 무리를 부르는 자비와 인자함을 보이며 새벽에 꼬교-!하고 울음소리로 여명을 알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청명한 목소리를 울려 온갖 잠귀신을 몰아내고 새벽의 맑은 공기와 밝은 하루를 보내라는 경각심의 종소리로 우리인간은 받아드려야 옳을 것이다.

서산대사는 지리산 암자를 전전하며 정진하던중 우울증에 빠진 그는 어느날 친구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가다 닭이 회를 치며 꼬교-!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 순간 크게 깨달음을 얻고서 오도송을 남겼다는 일화를 읽은 적이 있다. 일본사람은 닭을 신물로 여겨 신사에 모시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렇게 닭에 대한 관찰점은 동서를 막론

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집단사육으로 기업화하여 이제는 무역전쟁의 대상이 되었으니 우리가 당장 목적에 부닥친 양계산업의 앞날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앞으로 밀어닥치는 수입개방에 이제는 더 버틸수도 없고 이제는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자동화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우수한 고능력을 지닌 품종을 육종개발하여 질을 높이며 양질의 사료를 개발하여 사료효율을 높이고 환경위생개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각종 전염병 및 일반소모성 질병으로 부터 철저히 예방관리하면서 생산비를 최대한도로 줄인다면 충분히 국제경쟁에 이길수 있다는 이야기는 양계인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여 기반을 조성하는데는 시간, 재력 및 노력이 필요하며 양계인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양계인이 맡아서 할일이 있고 관에서 뒷받침하는 관리의 일이 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해야하는 일이 있으므로 직능에 맞는 일을 분담하여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풀어간다고 본다면 결코 양계산업의 전망은 어렵지만은 않다.

모든 일은 항상 평탄함 속에서만이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 봉착하였을 때 새로운 방안을 창출하여 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지혜는 어려움속에서 발굴된다고 믿고서 금년은 계유년 닭의 해인 길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민, 관, 학계연구기관이 3위일체되어 닭의 무역전쟁에 대응, 이겨나갑시다. **2111**